

완주군의 고대문화 부각시킨다

국립전주박물관과 업무협약
내년 6월 고대문화 특별전시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완주군은 완주군청 소회의실에서 박성일 완주군수와 천진기 국립전주박물관 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시작으로 완주군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완주역사문물전'을 열기로 했다. 완주역사문물전은 내년 6월 개최예정인 것으로 만경강유역에 소재하는 완주군의 특색있는 고대문화를 주제로 특별전시 및 학술대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주박물관은 향후 완주군립박물관 건립 추진 시 지역거점 박물관으로서 국립전주박물관의 자문과 협조 등 지속적인 교류를 가질 계획이다.

천진기 관장은 "그동안 전라북도 내 시·군을 주제로 개최된 국립전주박물관 역사문물전은 지역적 특색과 역사정립에 기여했다"며 "완주군의 만경강유역에서 확인된 중요 유적들과 출토유물들을 한자리에 마련함으로써 당시 완주인들의 수준 높은 기술과 생활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7일 완주군은 완주군청 소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쁘다"고 전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역사문물전은 완주군만의 특색 있는 역사를 정립하여 대내외의 알리는 의미 깊은 자리라 기대가 크다"며 "양 기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전시와 학술대회 개최를 이루어냄으로써 완주군 역사를 정립하고 지역정신을 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적 자부심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전주박물관과 함께 최초로 개최되는 완주 역사문물전을 계기로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완주군의 고대문화를 부각시키고, 현대적 재해석과 계승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 만나보세요’

‘완주 크리에이터 페어’ 17일 완주군청 뒤 잔디광장서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완주의 땅에서, 완주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창작품을 만나는 자리 '2018 완주 크리에이터 페어'를 오는 17일 완주군청 뒤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 완주 크리에이터 페어는 오랜 시간 지역민들의 삶의 현장이자 커뮤니티 거점으로 기능해온 완주의 전통시장과 완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 플라마켓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예술가들의 참여를 통해 각자의 고유한 브랜드를 발굴·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60여 개 단체가 참여하며 그 중 고산미소시장, 봉동생감골시장, 삼례시장, 이서문화어울림장터, 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난 8월 '완주크리에이터기획단'을 구성, 십여 차례 기획회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공예, 음식, 농작물 등 완주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재배, 생산, 제조, 제작한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나 볼 수 있으며,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접시와 텀블러를 대여할 계획이다. 다회용기를 직접 소지하고 방문한 분들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준비돼 있다.

완주문화재단 이상덕 상임이사는 "완주 크리에이터 페어는 기존의 개인 셀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장의 성격을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 문화, 경제, 정치를 망라한 생활밀착형 거점으로 역할을 해온 전통시장에 주목했다"며, "삼례, 봉동, 고산의 전통시장이고 민하고 있는 지점에 예술가들의 창의적 관점과 상상력이 결합해 각각의 시장들이 완주형 문화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재능기부로 모인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진 가을 밤

고창모양합창단 정기연주회 성료

깊어 가는 가을 밤 하모니로 소통하는 합창단원들의 아름다운 선율이 지난 6일 저녁 고창문화의 전당 밤하늘을 수놓았다.

'하모니로 소통하는'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순수재능기부를 위해 결성된 합창단원들로 40여명의 구성된 '모양합창단'이다. 이들은 그동안 틈틈이 준비한 '그대 있는 곳까지'로 무대의 서막에 올랐다.

이날 정기연주회에는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모양합창단에서 '과수원길', '고향의 봄', '중화반점', '최진사대 셋째 딸'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완벽한 하모니로 퍼포먼스를 선보여 호응을 얻었고, 영광합창단과 피아노3중주 특별공연으로 관객과 함께 연주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임현희 단장은 "몸으로 느끼고 소리로 느끼고 마음으로 전하는 예술이야말로 세계의 언어라 할 수 있다 생각하며, '함께', '한마음'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는 매일이 되었음을 하는 비련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양합창단은 2000년 재능기부에 뜻을 가진 여성들이 '여성합창단'이란 이름으로 창단한 이후 2002년 첫 정기연주회를 시작



지난 6일 저녁 고창문화의 전당에서 고창모양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으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모양합창단'으로 이름을 바꿔 남녀 혼성팀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고창

군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무용계 명사 콘서트 개최

최태지 예술감독이 들려주는

'춤의 대화-나의 발레 이야기'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을 오는 10일부터 전시 '공연 아카이브 사진전-찰나·동행'과 연계한 토크 콘서트를 세 번 연이어 개최된다.

10일 오후 3시에는 최태지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이 '춤의 대화-나의 발레 이야기'라는 주제로 자신의 인생에서 발레가 준 영향력과 발레 관련 에피소드들을 청중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최 감독은 '해설이 있는 발레'와 '찾아가는 발레'를 기획하면서 한국 발레의 대중화를 처음 시도하였으며, 37세의 나이에 최연소 국립발레단장을 역임해 최초리는 수식어가 곧잘 붙는 발레의 명장이다.

24일 오후 3시에는 이종호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장의 '세계 공연예술제, 그 다양한 풍경'이, 12월 1일 오후 3시에는 남정호(전 한예종 교수)의 "구르는 툴러"라는 제목으로 토크 콘서트가 이어진다.

미술관 관계자는 "무용이라는 예술 장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술관에 오셔서 사진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화려함과 울림에 빠져들게 되며, 세계적인 무용계 인사들의 토크 콘서트는 무용을 이해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술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며 문의는 063)620-5660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